

“민주주의 탈 쓴 악한 무리가 몰려온다”

공지영 “어느 악녀에 대한 보고서”

5년 만의 장편소설 ‘해리’ 출간

“이 소설은 한 마디로 어떤 악녀에 관한 보고서다”

작가 공지영(56)씨가 지난 30일 장편소설 ‘해리’ 출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올해 중단 30주년을 맞이한 공씨의 12번째 장편이다. ‘높고 푸른 사다리’ 이후 5년 만의 신작이다. 불의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정의 카르텔을 포착하고 맞서나가는 악한 자들의 투쟁을 담았다.

공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주변에서 목격한 악의 모습은 1980년대, 그 이전과는 굉장히 달랐다”며 “얼마든지 진보와 민주주의의 탈을 쓸 수 있고 그런 탈을 쓰는 것이 예전과 달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찍 체득한 사기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몇십년 간 싸워야 할 악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위선을 행하는 그런 무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소설로 형상화했다. 가톨릭 신자이지만, 소설에서 가톨릭의 비리를 정면으로 다뤄서 많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내 작품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충격을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더 충격을 받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 ‘해리’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지도 모를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원인을 규명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악이 사실은 집단의 악을 구성하거나 대표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소설은 그 근원을 파헤치는 과정이다. 비리를 덮고 감추기에 급급한 일부 종교단체, 정치활동을 빌미로 개개인의 선의를 갈취하는 사회활동가, 장애인을 돕는다며 모금활동을 하면서도 기부금을 빼돌리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오히려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의 행태 등 선하다고 또는 선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부패, 욕망을 날달이 파헤쳤다.

실화가 바탕이다. 약 5년 간 취재했다. “모든 소설이 그렇듯이 이 소설은 허구에 의해 씌어졌다. 다만 대구희망원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부분은 거의 실화를 다뤘다”

제목은 ‘해리성 인격장애’에서 가져왔다. “악인들의 공통점은 거짓말이었다.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책 제목을 ‘거짓말’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작품에서 썼기 때문에 내려왔다. ‘해리성 인격장애’에서 차용했다. 수많은 인격들이 뛰어 나오는 정신병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또 “광주 장애인 학교의 성폭력과 비리를 고발한 장편소설 ‘도가니’의 배경이 된 안개의 도시 ‘무진’을 다시 등장시켰다”며 “이중적인 인격의 해리성 인격장애에 비유될 정도로 표리부동한 인간들의 행태를 한눈에 드러내기 위해 소설이 되어 중 하나인 페이스북의 이미지를 소설에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뉴스



공지영 작가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장편소설 ‘해리’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익산시, 심사 통해 11개 제안서 선정해 상금·상장 지급키로

익산시가 공주시, 부여군, (재)백제세계유산센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활용, 마케팅, 관광, 교육,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유적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되며,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 중 심사를 통하여 11개 제안서를 선정, 상금과 상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10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unesco.baekje.or.kr>)를 통해서만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며, 당선작은 이후 사업성을 고려

하여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제안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활용방안 공모전을 통해 익산시의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해줄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와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unesco.baekj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9년만에 징계 무효

국방부, 2008년 불온도서 23권 지정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포함 군법무관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육군, ‘건의 절차 안 거쳐’ 징계 내려 법원 ‘헌법소원, 복무규율 위반 아냐’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9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한모씨 등 4명이 육군참모총장·국방시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항소 기한(7일) 내에 육군참모총장 등이 재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양도서(23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고, 각 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해당 도서들이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했다.

이 23권에는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안 촛스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저서들도 포함됐다.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해 육군법무장교로 임용된 한씨 등은 같은 해 10월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지시를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내리자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육군이 다음 해 3월 “건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개월, 근신 5일,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군법무관 6명이 시작한 소송은 1·2심에서 파면 등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이 부당하다고 인정됐다. 하지만 한씨 등 4명은 재판부가 자신들의 경징계는 합당하다고 판단하자 상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헌성에 관해 상관과 논의해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외부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이 정한 방법인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 외에 원고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헌법소원 제기 행위가 군복무 저해나 본분에 배치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

77세 도밍고, 2년만에 다시 온다... 가장 비싼 표 55만원

10월26일 잠실실내체육관서 “한국팬들의 음악 향한 따뜻한 애정 기억해”

‘20세기 3대 테너’로 통하는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77)가 2년 만에 내한공연한다.

공연 주최·주관사 풀앤푸시·푸르름에 따르면 도밍고는 10월2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국 팬들을 다시 만난다.

도밍고는 2016년 내한공연 당시 일흔 다섯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성량과 무대매너로 호평을 들었다. 1991년 처음 내한공연한 이래 6차례 한국을 찾았고 이번이 7번째다.

1957년 바리톤으로 데뷔한 도밍고는 1961년 미국에서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를 맡은 뒤 약 50년 간 테너로 활동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국립오페라, 런던 로열오페라, 밀라노 라 스칼라,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세계 최고의 오페라극장에서 활약했다. 지휘자와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했다.

팝가수 존 덴버와 함께 성악과 팝이 만난 곡인 ‘퍼펙트 러브’로 크로스오버 성악의 문을 열기도 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의 영화

‘라 트라비아타’에 출연, 대중에게 친숙한 성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계기는 ‘스리 테너’ 콘서트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전야제에서 투치야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한 무대다. 이 공연의 실황음반은 세계에서 1200만장이 팔려나갔다. 클래식 음반 중 가장 많이 팔린 음반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당시 공연 실황은 15억명에게 생중계됐다.

9번의 그래미상 수상, 3번의 라틴 그래미상 수상, 캐나다센터 명예인, 프랑스 레종 훈장, 영국 기사 작위, 미국 자유의메달 수훈 등의 기록을 썼다.

지금까지 3700여회의 공연(레코딩 포함)을 했다. 테너에서 바리톤으로 돌아온 뒤 목관리를 하며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격정적 아리아를 선사했다. 연말까지 런던, 밀라노, 발렌시아의 공연이 예정됐다. /뉴스



지난 내한공연에서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뿐 아니라 양코르크로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한 도밍고는 “한국팬들의 음악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티켓은 8월8일부터 할 수 있다. 최고가 표(Svip) 값은 55만원에 달한다. Vip 44만원, Vip 석 33만원이다. 세계 정상급 대형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 티켓 값을 훌쩍 뛰어 넘는 가격이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